불교 이래서 좋다

임선미 안동대 불교학생회장

"청정 · 고요 가슴에 와 닿아"



내가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전엔 종교를 갖지 않았고 나 자신만 굳게 믿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몇몇 시련과, 채워도 채워도 허전한 생의 구석진 감 등이 불교로 이끌었다. 처음엔 기독교에 잠깐 인연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도무지 그 멀고 크신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속이고 신도 속이는 듯한 자책감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불교 학생회인 대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지금껏 잘 다니고 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일 땐 절에 들르게 되면 법당에는 스님과 불자들만 드나들 수 있고 일반인은 감히 못들어갈 것 같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주 드나들게 되니 그 모든 것이 선입견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법우들과 함께 산사에 머물러 자원봉사도 하고 예쁜 연등을 손수 만들어 보는 것, 전국 유명사찰을 답사하는 것 등이 잔잔한 감동으로 더욱 불교를 이끌어 주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불교특유의 청정하고 고요함은 위안 같은 평안함, 그런 은근한 공감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인간미가 물씬 느껴지는 법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공감대가 훨씬 커진다.

한없이 자비로워 보이시는 부처님 전에 절을 하게 되면 평소 울컥했던 마음도 조용히 사그라들고 더불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교리부분은 소홀히 한 탓에 잘 알진 못하지만 불교 소설 등을 통해 더 흥미 있게 알아가고 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실천이자 마음이라 여겨 수행정진에 관심을 쏟아가는 중이다. 연꽃과 탱화, 향과 촛불, 목탁소리 등 여러모로 불교는 아름답고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통일 · 수행 화두' 청년대회

대불청 · 대불련, 청년불교침체 원인분석 · 활성화 모색

'통일'과 '수행'이란 화두로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결집한다.

한국청년불교의 양대 산맥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이하 대불청)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문수, 이하 대불련)는 전국불교청년대회와 1600년 대회를 통해 청년불교운동의 현실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속초서 통일 손도장찍기' '1080인 선언'

대불청= 7월13~14일 | 대불련= 8월2~5일

미황 · 대둔사서 '한국불교 1600년 대회'

창립 82주년을 맞는 대불청은 7월 13~14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 설악 한화리조트에서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갖는다.

'준비된 불청의 대도약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대회에서는 6 · 15 공동선언의 실천운동 및 성공월드컵 정신 계승을 위한 청년불자 선언문 발표를 비롯해 '청년 만해 통일다짐-통일 손도장 찍기' 행사, '2002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청년불자 1080인 선언 등이 진행된다. (02)738-3385

대불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해남 미황사, 대둔사 등 전남일대에서 '제21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연다.

'발걸음마다 평화! 몸짓마다 자비! 어울림마다 행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 불자들의 역할과 대불련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비롯해 달마산 산행과 문화유적 탐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불련 국토순례단발대식 등이 마련된다. (02)732-0239

올해 이들 단체는 회원수 격감, 재정자립도 빈약, 결속력 약화 등 줄곧 제기되어 왔던 청년불교의 고질적인 침체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활성화 모색방안을 '통일 분야'에서 찾으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대불련의 경우 문화행사를 통해 '학교축제' 분위기로 열렸던 예년의 대회와 달리 '참다운 구도자가 되기 위한 수행 · 정진' 프로그램에 주력한다.

또한 대불련은 '제40년차 여름교양학교'를 7월 12~14일 대전 충남대에서 연다.

이번 교양학교에서는 사이버 논객 진중근 씨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폭력성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의, 전통춤 배워보기, 단편영화 감상, 대불련 활성화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청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테마별 청소년 자원봉사 잇달아

청교련, '효실천의 날' '수영교실' '우리문화보존' 등



◇6월 23일 학생들이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마'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잇달아 열린다.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이하 청교련)는 6월부터 12월까지 무의탁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노력봉사 · 문화재 안내 · 점자도서 제작 등 '테마'별로 열리는 이번 자원봉사 한마당은 총 4차에 걸쳐 서울 일대 관련 시설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지도자 등 연인원만 700여 명이 참가한다.

6월 23일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제1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청교련은 8월 15일, 25일 양일간 구립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및 서울 곰두리 수영센터에서 '장애인과 하나 되는 수영교실'을 열고, 9월 15일에는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에서 '외국인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 보존하기' 자원봉사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청교련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함께 하는 밝은 세상' 행사를 청교련 중앙사무국과 마포점자도서관 등에서 실시한다. 특히 7월 27일에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에티켓 특강, 도서점자화 교육 등 한층 심화된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이 마포점자도서관에서 열린다. (02)735-8165

청소년 단신

파라미타 전북 · 대전 · 경북지부

24~27일 여름수련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 · 대전 · 경북지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속리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여름'이란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협동과 우애, 신앙심 배가 등을 목적으로 문화재 애호 캠페인 등을 벌이며, 생태답사 체험도 진행된다. (043)294-0107

담배를 끊읍시다

청소년 흡연 이유

중학생 경우 "호기심 때문" 34%

1.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때. 1997년에 연세대 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31.8%, 여자 중학생의 경우 33.3%가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대답했다.

2.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는 가족 내 부모와 형제에게 떨어져 나와 또래 집단, 즉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호기심보다는 오히려 친구가 담배를 피우니까 따라서 피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있다. 반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4.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는 어린이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닌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어린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성인이 되고자 기웃거리며, 성인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내불동

사이버 신행의 대표적 동호회

일주 · 불이문 등 4개 코너

포탈사이트 네띠앙의 불교인동호회인 내불동(forum.netian.com/@buddhism · 시삽 김규회)은 사이버 신행의 대표적인 동호회로 네티즌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998년 7월 16일 창립한 내불동은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맺어진 불교인 모임으로 비록 역사는 짧지만 현재 회원이 2300명이 넘는 대형 동호회로 성장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 내불동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서울 · 경기, 강원도, 대구 · 경북 등 지역모임을 가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사이버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사이버 법당. 바쁜 일상으로 고즈넉한 산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불동 사이버 법당을 참배하며 부처님께 헌화를 한다. 사이버 법당에서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음성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이를 클릭하면 오프라인 법회에서 도반들과 함께 독경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나 홀로 신행활동도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불동' 초기 화면.

내불동 도량은 일주문, 불이문, 수행문, 원융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일주문은 사찰의 처음을 알리는 일주문의 역할처럼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속 대화, 법문 모음, 가입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이문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통해 전국의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지역모임의 활동 공간이다. 또 수행문은 위빠사나, 경전 읽기, 궁금증 해결 등 불교 교리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원융문은 환경시사, 경전자료실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전자료실에는 다양한 경전과 선어록들이 소개되어 있어 불교에 대해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네티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海水觀世音菩薩像
인연있는 분을 찾습니다



海水觀音菩薩像 諸元

NO	종 류	높 이	가 로	세 로
1	해수관음보살石像	340		
2	2단 연화	63		
3	8각 연화좌대 받침석	26		
4	4각 받침석	49	180	180
5	4각 지반 기초석	20	347	347
6	4각 올탈리석(9개돌기둥)	81		
7	석등 2개	110		
8	중간 4각 지반 기초석		90	235
9	아치형 석교 (10개 난간 지주석)	81	127 38	353 110
10	초입 4각 지반 기초석			

연락처 011)752-0324

불교수행프로그램

은평구 불광동 화원사에서는 근본불교의 기초강좌와 실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교를 기초부터 실천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법의 원형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수 행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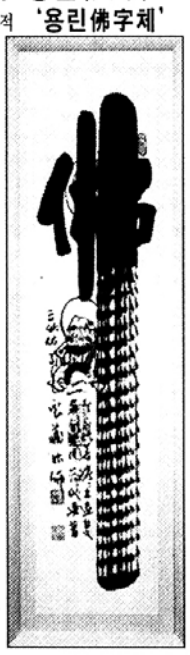
■ 매주 월요일 : 14시 ~ 16시(제1강)
19시 ~ 21시(제2강)
김 열권 선생 : 위빠사나
(1) 부처님의 안반수의(Anapana sati)호흡과 몸 · 감각 · 마음 · 법의 관찰 등을 지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禪을 할 수 있도록 참선체조와 호흡법 등 조도법도 수련함.
(2)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한 「위빠사나 Ⅰ·Ⅱ」와 체험사례로 엮은 「보면 사라진다」 등을 직접 강의함.

■ 매주 수요일 : 14시 ~ 16시(제1강)
19시 ~ 21시(제2강)
채 인환 스님 : 근본불교
계 · 정 · 혜 삼학을 비롯해서 사성제와 팔정도 등 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수행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매일 : 오후 2시 ~ 4시까지 참선체조 · 좌선 · 실수
◆장 소 : 서울 은평구 불광 3동 484-78번지 화원사 법당
(전화 : 02-383-9003/4(Fax 겸용), 011-392-3241)
◆교 통 : 전철 3·6호선 연신내역 1번 출구, 구파발 방향 도로변 80M지점 우측건물 4, 5층 청구성심병원 맞은 편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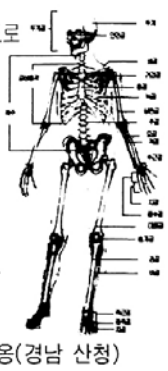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풍 및 유사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